

# 해남, 무단부착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효과 '톡톡'

### 3만여 장 전단 및 벽보 수거, 957만원 보상금 지급 1인 월 20만원 상한·1일 최대 4시간 봉사활동 인정

해남군(군수 명현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거리 미관 개선에 특효를 거두고 있다. 수거보상제는 관내 도로변, 건물벽면, 전봇대 등에 무단 부착된 벽보와 전단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참여대상은 해남군 거주 만65세 이상 및 저소득층 주민과 관내 중·고등학생으로 전단지는 1매당 200원, 벽보는 크기에 따라 200~300원을 보상한다. 1인 월 20만원이 상한인 해남군에서 실시하는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참여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학생의 경

우 예산 소진시 보상금 대신 1일 최대 4시간의 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다.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신분증, 통장사본과 함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도가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2만9천 900장의 전단과 벽보를 수거, 95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도시미관 개선,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주민의식 개선에도 효과가 크다"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깨끗한 해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남=김대수 기자 abc6789@



보성군은 지난 1일 의병의 날 10주년을 맞이해 벌교읍 흥암나철기념관에서 의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보성군 제공

## 의향의 고장 보성에 울려 퍼진 '만세' 함성

### 보성군, 의병의 날 10주년 맞아 보성의병 777명 기려

보성군은 지난 1일 의병의 날 10주년을 맞이해 벌교읍 흥암나철기념관에서 의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김철우 보성군수와 의병후손 등이 참석했으며, 모든 참석자는 의병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의병 복장을 입고 행사에 참여했다. 기념식은 머슴살이 의병장 안규홍의 활약을 그린 연극으로 포문을 열었으며, 현화 분향, 만세 삼창, 무궁화 꽃 피기 등의 프로그램이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

행했다. 추모공연은 보성군 문화예술회관 합창단이 '동소산 머슴새'를 선보였으며, 모든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흥암나철 기념관을 행진하는 퍼레이드로 기념식이 마무리 됐다.

보성군은 행사장에 전시장을 마련해 지난 2019년 의병 후손들에게 기증·기탁 받은 의병유물 88점 중 30여 점을 일반에 공개했다.

김철우 군수는 "보성 사람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기꺼이 창의했고, 이웃을

지키기 위해 의병이 돼 용감히 싸웠다."면서 "오늘의 행복이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보성의병이 가진 의미와 가치를 전국에 알리려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군은 호남 의병의 중심 거점으로 임진·정유재란 시 의병을 창 의한 죽전 박광전 선생을 비롯해 전라좌도 의병장 임계영 장군, 우산 안방준 의병장, 답살이 안규홍 의병장, 독립운동가 송재 서재필 선생, 흥암 나철선생 등을 배출한 충절의 고장이다.

/보성=김용욱 기자 ywkim@



이동진 진도군수가 지난 1일 전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유치·개발사업 △진도형 뉴딜 정책을 당부했다.

/진도군 제공

## 이동진 진도군수,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주문

이동진 진도군수가 코로나19 이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분야별 적극 추진을 강조했다.

지난 1일 6월중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 앞서 전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영상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유치·개발사업 △진도형 뉴딜 정책을 당부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진도대교 발원체크장 운영 등 적기 대응을 통해 코로나19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이 군수는 "정정진도 이미지로 인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주고 있는 만큼 철저한 후속 대책을 수립해 서남해 대표 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진도군은 저소득층 2천658가구에 한시생활자금 약 15억원과

관내 1만1천여 가구에 긴급생활비 36억 원을 지급했다"며 "특히 9개 지원사업에 군비 약 70여 억원을 포함 207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군수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 △마을가꾸기 2단계 사업 적극 추진 △밝은 거리 조성사업 △꽃밭, 소공원, 가로수길 조성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군수는 "코로나19 진도군 종합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TF팀 구성·운영을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에 군정 현안사업이 최대한 빨리 시행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진도=이현일 기자 leehi777@

## 장흥군 친일잔재 청산 TF단 본격 활동

장흥군이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조직한 TF단이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안중근 의사 순국 110주년을 맞아 '2020년 해동사방문의 해'를 선포한 장흥군은 지역 내 남아 있는 친일잔재를 조사해 이를 바로잡기로 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의 위패와 영정을 봉안하고 있는 해동사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의향 장흥' 면모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탄생한 '장흥군 친일잔재 청

산 TF단'은 기획홍보실장을 총괄단장으로 민간단원 2명과 행정단원 6명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28일에는 군청 상황실에서 친일잔재 청산 방향과 조사 범위, 방법 등을 놓고 첫 논의를 가졌다.

조사 범위는 일제 강점기 행정구역 명칭, 친일관련 기록물, 건축물, 도로명·지명 변경사항, 문화유산, 문화재 등이다.

TF단은 지난 1일부터 한 달간 1단계 친일잔재 청산과 관련한 홍보와 자료 접수에 돌입한다.

지역민이 알고 있는 친일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임의신고 방식으로 접수를 받는다. 접수된 자료는 사안별로 분류하고, 자료 양에 따라 자체 추진 또는 용역 병행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전문가의 검토 등을 거쳐 진위를 가린다.

자체 추진과 용역을 병행해 분류하고,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진위 여부를 가린다. 2단계 기간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친일 잔재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9월부터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청산 방법을 결정하고, 존폐 여부, 안내판 설치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장흥=김정근 기자 kimjg@

## 고흥, 안심 귀가 '로고젝터' 설치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여성친화도시 기반 조성사업으로 여성·아동·청소년 왕래 빈번한 취약구간 13개소에 여성 안심 귀갓길 로고젝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로고젝터란 군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새겨 LED 조명을 투사해 표시하는 장치이다. 야간에 귀가하는 통행자의 심리적 안정 제공은 물론, 범죄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시설물로, 주민들에게는 체감 안전도 향상, 범죄자에게는 심리적 경각심을 주어 여성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여성 안심귀갓길 로고젝터 문구로 '행복이 꽃피는 안심고흥', '안심하고 귀가하세요, 당신은 혼자 아님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힘내요 당신'은 늘 최고예요' 등의 내용으로 친근하면서도 안전을 강조하는 문구 외 퇴근길을 응원해주는 감성문구로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지난 4월에는 주요 관광지 읍면 파출소에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감지기 보급으로 여성안심 화장실 환경을 조성했고 하반기에는 여성·아동·청소년의 왕래가 잦은 우범지역에 '여성안심지킴이 집' 운영 예정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24시간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야간에 군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추진 등 군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고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고흥=이문석 기자

## 완도, 中 연운구서 마스크 지원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최근, 우호 교류 도시로 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장쑤성 연운항시 연운구로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구호 물품을 지원받았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중국 연운구는 장쑤성의 성도로 완도군과는 지난 2006년 9월 우호 교류 도시 체결 후 농수산물 소비 촉진과 국제박람회 참가 등 활발한 교류·협력 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연운구민들의 마음이 담긴 마스크는 우리 군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연운구와 완도군이 지금까지 이어온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고 앞으로 폭 넓은 교류사업 등을 통해 양 국가가 더욱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완도=백나영 기자 ny4040ny@

문화관광의 중심지

기외 고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 평일 범상 한속

# 남다른 여행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 / 왕인문화축제 / 월출산 기차랜드 / 구림전통마을  
월출산 국화축제 / 마한축제 / 기차밧길 / 한국트롯트가요센터